

2019년 11월의 6.25전쟁영웅 김금성 공군 준장

(자료제공 :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☎044-202-5712)

포화 속, 평화를 위해 날아오르다

국가보훈처는 '김금성' 공군 준장을 11월의 6·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.

- 김금성 공군 준장은 승호리 철교폭파작전,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등 공군이 출격한 거의 모든 주요 작전에 참가하여 획기적인 전공을 세웠다.
- 1927년 11월 충북 충주에서 출생한 김금성 준장은 1950년 10월에 공군 소위에 임관하여 공군비행단 비행대에서 정찰을 비롯한 비행 임무를 수행하였다.
- 1951년 10월부터는 강릉기지에서 F-51 전투기로 출격을 시작하여 1952년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차단작전, 송림제철소 폭격 작전, 351 고지 탈환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거의 모든 주요작전에 참가하여 획기적인 전공을 세웠다.
- 전쟁기간 중 전투비행대대장, 작전과장 등을 역임하여 비행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투조종사로서 195회 출격을 기록하였으며,

- 작전 중에 여덟 번이나 적의 대공 포화에 전투기가 피탄 되었으나 투철한 책임감과 우수한 조종기량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, 모든 출격 조종사의 표상이 되었다.
- 전쟁 후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,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근무하여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.



김금성(金錦成) 공군 준장
(1927.11.27.~1961.8.19.)
상훈 : 태극무공훈장('61)